

“홍어에 소고기 맛보자” 나주 영산포에서 남도 미식 대향연

영산포 홍어·한우 축제 5월 23~25일 개최… 홍어 50%, 한우 30% 상설할인 등 이벤트 풍성

600년 전통을 이어온 삭힘의 미학, 남도 잔치상 대표 음식인 숙성 홍어와 명품 나주 한우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 축제가 이번 주 나주 영산포에서 펼쳐진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영산포둔치 시민체육공원 일원에서 ‘제21회 영산포 홍어·한우축제’가 열린다.

영산포 홍어 축제는 나주지역 최장수 음식문화축제다. 올해부터 영산포 홍어·한우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장행준)는 삭힘의 미학을 엿볼 수 있는 숙성 홍어와 더불어 최상급 육질과 신선도를 자랑하는 나주산 소고기를 전국 미식가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3일간 행사장 홍어 판매 부스에선 50%할인된 가격에 숙성홍어를, 30%할인된 가격에 나주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근 홍어의 거리 상가를 방문하면 할인된 가격에 숙성 홍어를 맛볼 수 있다.

축제 현장인 영산강 둔치공원 인근엔 붉은 치마를 두른 꽃양귀비가 만개해 절경을 이루며 연일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붉은색 꽃양귀비와 꽃 사이사이를 수놓은 하얀 안개조가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나주시가 이번 홍어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14만㎡(약 4만2천평) 규모로 조성했다. 주차는 영산강둔치 시민체육공원과 인근 주차장, 도로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홍어 주산지인 전라남도에서는 특 쏘는 알싸한 맛이 일품인 삭힌 홍어회를 주로 먹는다. 숙성 홍어회에 찰진 돼지 수육과 곰 삭힌 목은지를 얹혀 먹는 ‘홍어삼합’(三合), 구수한 김을 더하면 ‘홍어사합’(四合)의 풍미를 느껴볼 수 있다.

노안 정고집, 다도 참주가를 비롯해 숙

성 홍어와 찰떡궁합인 남도 막걸리 10여종을 맛볼 수 있는 전시·시음 부스도 운영해 미식·애주가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회뿐만 아니라 찜, 전, 무침, 홍어 간을 끓인 애국, 막걸리를 곁든 홍탁 등 침샘을 자극하는 홍어 요리를 종류별로 느낄 수 있다.

‘막힌 코가 땀 흘리는 알싸한 그 맛’을 현장에서 맛보기 위한 전국 각지의 홍어 매니아들이 숙성 홍어의 본고장 나주 영산포로 향할 채비를 마쳤다.

나주시는 전라남도 최대 축산업 중심지다. 시는 연평균 1만5천여 한우가 거래되는 영산포 우(牛)시장이 자리한 지역 특성을 살려 이번 축제에 1등급 한우 상설 할인 판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축제 분위기를 한층 띄워줄 초대가수 공연도 기대를 모은다. 미스터트롯 장민호와 효녀 가수 현숙을 비롯해 현진우, 차효린, 이청아 등이 영산강을 배경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마지막날인 25일 밤엔 영산강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쇼도 예정돼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더 새로워진 나주 영산포 홍어·한우축제가 전국 미식가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3일간 숙성 홍어, 한우 등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재미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로 소중한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영광군이 그리는 ‘인구 10만 자립도시’ 풍부한 해상풍력·태양광 기반 ‘순순환 모델’ 구축 구상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도형 성장 모델을 제시하며, ‘인구 10만 자립 도시’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같은 자연 자원을 에너지 산업으로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단지와 고용 창출, 인구 유입까지 이어지는 ‘순순환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영광군은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신재생에너지의 최적지다. 연간 일사량은 4.0~4.2kWh/㎡에 달하고, 평균 풍속은 6.0m/s 이상을 기록한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모두에 적합한 조건으로, 영광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다수의 민간 및 공공 에너지 기업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군은 이런 천혜의 자연 여건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에너지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첫걸음은 전력 생산이다. 해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본격화함으로써, 영광은 자체 에너지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지 역할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생산된 전력을 중심으로 배후 산업단지와 물류·정비 기능을 갖춘 거점기지를 조

성하고, 나아가 관련 기업과 기관 유치에 나선다는 복합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O&M(Operation & Maintenance) 거점기지’ 구축은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해상풍력 유지관리 기능을 갖춘 이 기지는 부품 정비, 기술지원, 선박관리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함께 수반한다. 에너지 산업의 전 과정이 이뤄지는 클러스터로 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원칙으로 전력 소비 구조도 변화시키려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고, 에너지 생산지로서의 혜택을 주민과 기업에 돌려주는 전력요금 차등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력 사용 비용이 낮아져, 기업으로서서는 영광이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갖춘 산업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지정으로 이어진다. 영광군은 에너지 생산·소비·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단위 산단 지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첨단기술, 수소 산업, AI 및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보성군은 지난 16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 20명을 현장에 파견하고 긴급 복구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보성군을 비롯한 강진군, 광양시 등 3개 시·군에서 총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고추 지주대 설치 작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재해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보성군에서는 남도사랑봉사단(단장 임영서)을 비롯한 보성군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 소속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여해 현지 농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복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을 넘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재해 복구 등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위해 온기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재난 봉사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보성군, 경북 의성 산불 피해 복구에 발 벗고 나서

남도사랑봉사단, 새마을회 등 자원봉사자 20명 투입

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고추 지주대 설치 작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재해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보성군에서는 남도사랑봉사단(단

장 임영서)을 비롯한 보성군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 소속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여해 현지 농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복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을 넘어 이웃의 아픔

을 함께 나누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재해 복구 등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위해 온기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재난 봉사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담양군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보급해 정보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한다.

담양군, 장애인 디지털 격차 줄이는 보조기기 지원 나선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장애 유형별 맞춤형 기기 보급

지원 대상은 담양군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과 상이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며, 보급 품목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광학문자판독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130여 종의 기기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보조기기 가격의 80%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90%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6월 23일까지며, 온라인(www.at4u.or.kr), 방문,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담양군청 행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필요한 분들이 제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에서 위탁 지원하는 화순지역자활센터(센터장 설진국)는 지난 13일 종사자 및 자활근로 참여자 60여 명과 함께 친환경·자원 순환 사업과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자활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전북 전주지역자활센터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전북 전주지역자활센터는 2023년 전북 지역 최초로 150명 규모의 다화용기 세

화순지역자활센터, 상반기 국내 연수 프로그램 진행

척·렌탈 사업장인 ‘전주 예코워싱’ 사업장을 구축하여 정례식장과 지역축제장에 다화용기를 공급, 자원 순환 활성화의 모범 사례다.

설진국 화순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은 하반기에 오픈할 ‘예코워싱

화순점’ 추진에 필요한 환경 등을 벤치마킹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견문을 넓혀 신규 자활근로 사업 참여 의욕의 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화순지역자활센터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타지역 자활 모범 사업장을 정

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화순군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운영 중인 화순지역자활센터 참여를 원하는 분은 화순군 사회복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061-375-4111)

화순/김종환 기자

장성군, 1학기 대학생 등록금 최대 200만원 지원 ‘1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6월 13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19일부터 올해 1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장성지역 대학생 1명당 학기별 최대 200만원, 누적 8학기까지 등록금 일부담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2022년 5월 15일 이전 전입) 장성군에 주민등록 △전학하지 12

학점 이상 이수, 평균 C학점 이상 취득 △30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국내 대학 재학생이다. 2025년도 1학기분 국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이력이 있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기간은 오는 6월 13일까지다. 장성군은 지원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국가·교내장학금이 확정되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